WEBVTT

00:00:10.897 --> 00:00:11.677 반갑습니다.

00:00:11.798 --> 00:00:13.144 진민 샘이고요.

00:00:13.244 --> 00:00:15.518 이제 경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.

00:00:15.618 --> 00:00:19.756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.

00:00:19.856 --> 00:00:23.014 그런데 원래 경제 교과서랑 비교했을 때는

00:00:23.114 --> 00:00:24.822 이만큼만 배우시는 겁니다.

00:00:24.922 --> 00:00:29.224 무역 이론만 그리고 세계 무역의 현상.

00:00:29.324 --> 00:00:31.250 이 정도만 배우시고요.

00:00:31.350 --> 00:00:35.065 원래 이거 말고 환율 테마가 있는데 그 환율이 좀 어려워요.

00:00:35.165 --> 00:00:37.084 그런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

00:00:37.184 --> 00:00:39.930 환율은 안 나와요, 없어요.

00:00:40.030 --> 00:00:41.239 아시겠죠?

00:00:41.339 --> 00:00:45.202 그래서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이라고 해서

00:00:45.302 --> 00:00:49.257 세계 경제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국제 경제의 어떤 트랜드.

00:00:49.357 --> 00:00:53.020 그리고 가장 중요한, 보시는 무역이론.

00:00:53.120 --> 00:00:57.968 절대 우위, 비교 우위, 특화 이런 게 있습니다.

00:00:58.068 --> 00:01:01.084

역시나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

00:01:01.184 --> 00:01:04.803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머리 좋잖아요.

00:01:04.903 --> 00:01:07.467 그 어려운 수학도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.

00:01:07.567 --> 00:01:08.789 아시겠죠?

00:01:08.889 --> 00:01:11.306 바로 보겠습니다.

00:01:11.995 --> 00:01:14.196 테마는 국제 무역인데요.

00:01:14.296 --> 00:01:20.067 첫 번째는 국제 분업이 뭐냐, 이건 제목 그대로죠.

00:01:20.167 --> 00:01:24.103 경제가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리파트에서도 배웠지만

00:01:24.203 --> 00:01:26.894 이른바 공간적인 분업 활동.

00:01:26.994 --> 00:01:30.627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기획, 마케팅, 전략.

00:01:30.727 --> 00:01:31.925 이런 걸 짜고.

00:01:32.025 --> 00:01:36.387 문제를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노동비와 인건비가 싼 제3세계.

00:01:36.487 --> 00:01:38.306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든가

00:01:38.406 --> 00:01:42.017 그런 다소 노동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고

00:01:42.117 --> 00:01:48.120 이런 경제 세계화라든가 또는 국가끼리 어떤 나라는 A 제품만 만들고

00:01:48.220 --> 00:01:52.844 또 어떤 나라는 B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서로 교환하고 맞바꾸면

00:01:52.944 --> 00:01:57.043 양쪽 다 이득이 되지 않겠냐, 이런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00:01:57.143 --> 00:02:00.364 국제 분업과 무역이 생겨나는 겁니다, 이해되겠습니까?

00:02:00.464 --> 00:02:03.278 그래서 잠깐 보시면, 국제 분업.

00:02:03.378 --> 00:02:06.684 나라별로 환경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.

00:02:07.257 --> 00:02:11.629 자연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노동비가 싼 데도 있고

00:02:11.729 --> 00:02:14.896 나라마다 각종 장단점이 분명히 구별되니까

00:02:14.996 --> 00:02:19.880 그런 환경 같은 것들을 맞추어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특화해서

00:02:19.980 --> 00:02:23.887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 거죠.

00:02:23.987 --> 00:02:28.131 가령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제일 크고

00:02:28.231 --> 00:02:30.409 미국이 솔직히 제일 잘났잖아?

00:02:30.509 --> 00:02:35.001 그러면 제일 잘난 미국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

00:02:35.101 --> 00:02:36.620 이건 비효율적이죠.

00:02:36.720 --> 00:02:39.420 그래서 미국이 자신 있는 거 하나 만들고

00:02:39.520 --> 00:02:42.233 한국이 자신 있는 거, 일본이 자신 있는 거

00:02:42.333 --> 00:02:46.464 이런 걸 특화해서 서로서로 맞바꾸고 교환하면

00:02:46.564 --> 00:02:52.019 양쪽 다 이득이 되지 않겠냐, 이게 국제 분업의 개념인 거죠.

00:02:52.119 --> 00:02:52.869 이해됐죠?

00:02:52.969 --> 00:02:54.326

이게 무역입니다.

00:02:54.426 --> 00:02:56.438 볼게요, 무역.

00:02:56.538 --> 00:03:02.006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상품, 서비스, 각종 생산 요소.

00:03:02.106 --> 00:03:03.511 이건 전 시간에 배웠죠?

00:03:03.611 --> 00:03:05.150 생산 요소 뭐였어요?

00:03:05.250 --> 00:03:07.711 토지, 노동, 자본 등

00:03:07.811 --> 00:03:11.928 생산 요소라든가 재화와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 같은 것들이

00:03:12.028 --> 00:03:15.464 국가와 국가를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

00:03:15.564 --> 00:03:17.486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역이죠.

00:03:17.586 --> 00:03:21.258 그래서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.

00:03:21.428 --> 00:03:22.925 이게 무역이 되는 것입니다.

00:03:23.025 --> 00:03:29.204 그래서 국제 분업과 무역은 당연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.

00:03:29.304 --> 00:03:31.591 내용은 쉽죠?

00:03:31.691 --> 00:03:33.913 그러면 세 번째, 이게 중요합니다.

00:03:34.013 --> 00:03:37.621 내신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고요.

00:03:37.721 --> 00:03:44.350 발생 원리, 이른바 무역이론이라고 해서 절대 우위라는 게 있고

00:03:44.450 --> 00:03:47.028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 우위라는 게 있어요.

00:03:47.128 --> 00:03:49.319 절대 우위, 비교 우위. 00:03:49.419 --> 00:03:53.025 여기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

00:03:53.125 --> 00:03:53.949 봐요.

00:03:54.049 --> 00:03:57.812 절대 우위라는 것은 역시나 말 그대로

00:03:57.912 --> 00:04:02.516 어떤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

00:04:02.616 --> 00:04:07.461 더 적은 생산비로 생산하는 게 절대 우위인 겁니다.

00:04:07.561 --> 00:04:12.909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이 있는데

00:04:13.009 --> 00:04:16.598 나라마다 그 제품을 한 개 만드는데

00:04:16.698 --> 00:04:19.558 들어가는 생산 비용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.

00:04:19.658 --> 00:04:23.670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동비가 싸거나

00:04:23.770 --> 00:04:28.076 각종 환경적인 이점이 있어서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

00:04:28.176 --> 00:04:32.191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나라가 어디냐, 이걸 보자는 겁니다.

00:04:32.291 --> 00:04:38.149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 한 나라가 적은 생산비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면

00:04:38.249 --> 00:04:41.809 그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.

00:04:41.909 --> 00:04:45.028 이걸 절대 우위라고 하고요.

00:04:45.128 --> 00:04:49.323 그런데 요즘 무역 개념에서는 절대 우위는 잘 안 쓰입니다.

00:04:49.423 --> 00:04:52.672 왜냐하면, 아까도 이야기했지만, 국제 분업이 활성화되면서

00:04:52.811 --> 00:04:55.669

절대 우위보다는 이 비교 우위.

00:04:55.769 --> 00:05:01.026 이 비교 우위에 근거해서 실제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.

00:05:01.126 --> 00:05:03.086 그래서 이 비교 우위를 잘 보세요.

00:05:03.186 --> 00:05:05.445 비교 우위.

00:05:05.545 --> 00:05:09.687 한 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

00:05:09.787 --> 00:05:13.635 더 적은 기회의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.

00:05:13.735 --> 00:05:16.330 그러니까 기회의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은

00:05:16.430 --> 00:05:20.946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잖아, 그렇잖아?

00:05:21.046 --> 00:05:23.116 기회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

00:05:23.216 --> 00:05:27.801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경제 선택의 개념이었습니다.

00:05:27.901 --> 00:05:32.991 그러니 더 적은 기회의 비용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

00:05:33.091 --> 00:05:36.990 그 나라가 그 제품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.

00:05:37.090 --> 00:05:41.035 절대 우위가 아니고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

00:05:41.135 --> 00:05:47.899 서로서로 교환하고 무역해서 각자 다 이익을 얻는 게 좋지 않겠냐.

00:05:47.999 --> 00:05:48.671 이해되겠습니까?

00:05:48.771 --> 00:05:50.338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.

00:05:50.438 --> 00:05:53.728 그래서 옛날부터죠, 최근이 아니고.

00:05:53.828 --> 00:05:58.819 옛날부터 이 비교 우위에 입각해서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
00:05:58.919 --> 00:06:00.912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.

00:06:01.012 --> 00:06:04.401 역시나 교과서 사례를 제가 붙여놨는데요.

00:06:04.501 --> 00:06:10.561 시험 문제도 지금 보시는 사례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.

00:06:11.991 --> 00:06:13.980 한번 볼게요.

00:06:14.080 --> 00:06:17.482 절대 우위, 비교 우위 사례인데요, 봐 봐요.

00:06:17.582 --> 00:06:22.963 밑에 설명은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지금 노트북 그리고 옷.

00:06:23.063 --> 00:06:24.750 이게 재화입니다, 상품.

00:06:24.850 --> 00:06:28.143 이 노트북과 옷을 만드는 거예요.

00:06:28.243 --> 00:06:30.744 그런데 갑국, 을국.

00:06:30.844 --> 00:06:36.408 이 두 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다 노트북과 옷을 만들 수 있어요.

00:06:36.508 --> 00:06:39.543 그런데 지금 몇 원이라고 나와 있죠.

00:06:39.643 --> 00:06:43.386 이걸 전문 용어로 단위 생산량이라고 하는데

00:06:43.486 --> 00:06:49.563 만약에 갑국이 노트북을 한 대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

00:06:49.663 --> 00:06:51.663 100원이 든다는 뜻입니다.

00:06:51.763 --> 00:06:57.823 즉 갑국은 노트북을 한 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100원인 거예요,

00:06:57.923 --> 00:06:59.822 이게 생산비용이겠죠?

00:06:59.922 --> 00:07:04.290 그런데 갑국은 옷이 200원이 드는 거예요.

00:07:04.390 --> 00:07:09.266 그러니까 갑국은 노트북, 옷 중에서 뭐가 좀 더 잘 만드는 거냐.

00:07:09.366 --> 00:07:12.145 노트북을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, 왜?

00:07:12.245 --> 00:07:16.571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, 이해되겠습니까?

00:07:16.671 --> 00:07:19.852 그런데 웃긴 건 밑에 봐 봐, 을국.

00:07:19.952 --> 00:07:25.714 을국은 노트북을 한 대 만들려면 600원이 들어요.

00:07:25.814 --> 00:07:29.542 거의 갑국이랑 비교했을 때 6배의 비용이 드는 거죠.

00:07:29.642 --> 00:07:30.438 다음요.

00:07:30.538 --> 00:07:34.390 을국은 옷을 하나 만드는데 400원이 듭니다.

00:07:34.490 --> 00:07:36.238 그러면 봐 봐요.

00:07:36.338 --> 00:07:39.941 갑국과 을국을 비교했을 때 노트북 만드는 것과

00:07:40.041 --> 00:07:44.708 옷 만드는 건 갑국과 을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절대적으로 잘났죠?

00:07:44.808 --> 00:07:49.032 갑국이 절대적으로 잘났어요, 이게 절대 우위 개념이에요.

00:07:49.132 --> 00:07:49.899 이해되죠?

00:07:49.999 --> 00:07:53.057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, 천천히 볼게요.

00:07:53.157 --> 00:07:57.348 갑국, 을국이 노트북, 옷을 만든다고 가정하자.

00:07:57.448 --> 00:07:59.283 각 상품의 1단위 생산비용. 00:07:59.383 --> 00:08:04.347 이게 말이 좀 어려울 텐데,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.

00:08:04.447 --> 00:08:06.679 그러면 이 1단위는 뭐냐, 한 개.

00:08:06.779 --> 00:08:09.328 그러니까 옷 한 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.

00:08:09.428 --> 00:08:11.222 노트북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비용.

00:08:11.322 --> 00:08:13.743 이걸 1단위 생산 비용이라고 해요, 말 그대로.

00:08:13.918 --> 00:08:18.459 그러니까 갑국은 노트북 1단위 생산비용이 100원.

00:08:18.559 --> 00:08:23.228 을국은 노트북 1단위 생산 비용이 600원, 이런 뜻입니다.

00:08:23.328 --> 00:08:24.740 오케이?

00:08:24.840 --> 00:08:26.521 위 표와 같다.

00:08:26.621 --> 00:08:29.860 이때 갑국은 두 상품 생산에

00:08:30.016 --> 00:08:34.216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.

00:08:34.316 --> 00:08:36.189 왜요? 봐 봐요.

00:08:36.289 --> 00:08:42.039 노트북을 만드나 옷을 만드나 을국과 비교했을 때 돈이 덜 드니까요, 그렇죠?

00:08:42.139 --> 00:08:46.322 그러면 얼핏 보면 그러면 갑국이 다 만들면 되겠네,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.

00:08:46.820 --> 00:08:50.380 그런데 그게 아니지, 봐 봐.

00:08:50.480 --> 00:08:55.342 절대 우위 개념으로 보면 갑국이 다 하는 게 맞죠.

00:08:55.442 --> 00:08:59.154

그런데 노트북을 한 대 만들려면,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

00:08:59.254 --> 00:09:05.216 노트북을 한 대 만들려면 갑국은 옷을 이만큼.

00:09:05.316 --> 00:09:11.106 그리고 을국은 옷을 이만큼을 포기해야 됩니다.

00:09:11.206 --> 00:09:12.873 이게 무슨 말이게요?

00:09:12.973 --> 00:09:14.414 네, 바로 기회의 비용이죠.

00:09:14.514 --> 00:09:20.891 왜냐하면, 지금 이걸 하나 만든다면 나머지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.

00:09:20.991 --> 00:09:23.508 맞죠? 선택과 포기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.

00:09:23.608 --> 00:09:25.191 그러면 봐 봐요.

00:09:25.291 --> 00:09:28.057 갑국은 왜 옷이 0.5일까요?

00:09:28.157 --> 00:09:32.307 지금 노트북을 한 대 만든다, 그러면 100원이 드는 거 아니냐.

00:09:32.407 --> 00:09:33.003 그렇지?

00:09:33.103 --> 00:09:36.098 그런데 옷을 하나 만들려면 200원이 들잖아.

00:09:36.198 --> 00:09:40.071 그러면 100원 가지고는 옷 한 벌을 못 만들고 반만 만들 수 있는 거죠.

00:09:40.171 --> 00:09:43.318 그렇잖아요, 팔이 한쪽만 있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, 굳이 말하면.

00:09:43.418 --> 00:09:44.350 팔 수가 없죠?

00:09:44.450 --> 00:09:50.188 그러니까 갑국 같은 경우는 이 희소한 100원을 노트북에 투여하는 거잖아?

00:09:50.288 --> 00:09:53.417 그러면 100원이 이제 옷에서 포기되는 건데 00:09:53.517 --> 00:09:56.082 옷은 하나 만드는 데 200원이 필요한 것이니까

00:09:56.182 --> 00:09:57.890 결국 옷을 0.5.

00:09:57.990 --> 00:10:01.362 2분의 1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, 이게 기회의 비용인 거죠.

00:10:01.462 --> 00:10:03.299 이해가 되죠?

00:10:03.399 --> 00:10:05.357 그런데 율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?

00:10:05.457 --> 00:10:10.280 을국 같은 경우는 600원을 투여해야지 노트북 하나 만들 수 있잖아.

00:10:10.380 --> 00:10:12.266 그러면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.

00:10:12.366 --> 00:10:13.900 그러면 600원 쓴 거 아니냐, 그렇지?

00:10:14.000 --> 00:10:18.313 그런데 옷 같은 경우는 한 벌 만드는 데 400원이 드는 거 아닙니까?

00:10:18.802 --> 00:10:23.195 그러니까 400원을 들였다면 옷을 한 벌 만들 수 있죠?

00:10:23.295 --> 00:10:25.193 그런데 지금 200원이 더 들어야 되는 거니까

00:10:25.330 --> 00:10:29.062 이건 결국 400분의 600이 되는 거죠, 그렇잖아요.

00:10:29.162 --> 00:10:31.358 투여한 비용이 600이니까

00:10:31.458 --> 00:10:38.117 그러면 결국 을국은 옷을 1.5벌을 포기하는 꼴인 거죠, 굳이 계산하면.

00:10:38.217 --> 00:10:40.241 이해되겠죠? 이건 산수입니다.

00:10:40.341 --> 00:10:44.397 결국, 포기의 비용은 이렇게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.

00:10:44.497 --> 00:10:46.711

갑국은 옷 2분의 1.

00:10:46.811 --> 00:10:48.882 그리고 을국은 옷 2분의 3.

00:10:48.982 --> 00:10:50.784 그러니까 1.5가 되는 거죠.

00:10:50.884 --> 00:10:52.610 그러니 봐 봐요.

00:10:52.710 --> 00:10:57.240 노트북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적죠.

00:10:57.340 --> 00:10:59.616 그렇잖아요, 갑국은 기회의 비용이 0.5고

00:10:59.762 --> 00:11:01.793 을국은 기회의 비용이 1.5니까.

00:11:01.893 --> 00:11:05.719 그러니 비교 우위 개념을 접목시키면

00:11:05.819 --> 00:11:10.684 기회의 비용이 적은 걸 만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.

00:11:10.784 --> 00:11:14.844 그러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기회의 비용이 적으니까

00:11:14.944 --> 00:11:18.361 노트북을 만드는 건 갑국이 만드는 게 유리한 거죠,

00:11:18.461 --> 00:11:20.429 기회의 비용이 적으니까요.

00:11:20.529 --> 00:11:24.664 반면 이번에는 거꾸로 옷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.

00:11:24.764 --> 00:11:27.653 옷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어때요?

00:11:27.753 --> 00:11:29.493 노트북 2단위인 거죠.

00:11:29.593 --> 00:11:30.745 무슨 말이에요?

00:11:30.845 --> 00:11:34.538 갑국은 옷을 하나 만들려면 200원, 이게 소요되잖아.

00:11:34.638 --> 00:11:37.560 그런데 200원이면 노트북을 몇 대? 00:11:37.660 --> 00:11:39.655 100원에 한 대니까 2대요.

00:11:39.755 --> 00:11:44.253 그러니까 갑국은 옷을 만들 때 포기되는 기회의 비용은

00:11:44.353 --> 00:11:47.646 노트북 2대인 겁니다, 맞죠?

00:11:47.746 --> 00:11:50.003 그런데 을국은 봐 봐요.

00:11:50.103 --> 00:11:53.093 옷 하나 만드는데 400원이면 되죠.

00:11:53.193 --> 00:11:56.219 그런데 노트북 하나 만들려면 600원이 요구됩니다.

00:11:57.195 --> 00:12:01.611 그러면 이건 600분의 400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.

00:12:01.711 --> 00:12:04.332 노트북이 한 대에 600원이니까, 맞죠?

00:12:04.432 --> 00:12:09.279 그러니까 노트북 3분의 2단위가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.

00:12:09.379 --> 00:12:10.268 이해됩니까?

00:12:10.368 --> 00:12:13.045 그러면 기회의 비용으로 따지면

00:12:13.145 --> 00:12:15.945 여기서는 을국이 좀 더 기회의 비용이 적죠.

00:12:16.045 --> 00:12:20.759 갑국은 기회의 비용이 2, 을국은 기회의 비용이 3분의 2.

00:12:20.859 --> 00:12:22.316 그러니까 1이 안 되잖아.

00:12:22.416 --> 00:12:23.117 이해가 돼?

00:12:23.217 --> 00:12:28.402 그러니 기회의 비용 측면에 주목하는 비교 우위 개념으로 본다면 00:12:28.502 --> 00:12:30.815 결국에는 노트북은 어디가?

00:12:30.915 --> 00:12:31.470 갑국이.

00:12:31.570 --> 00:12:32.692 그리고 옷은 어디가?

00:12:32.792 --> 00:12:35.041 을국이 만들어서 서로 교환한다면

00:12:35.141 --> 00:12:38.771 기회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택인 거잖아요.

00:12:38.871 --> 00:12:39.824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

00:12:39.971 --> 00:12:43.351 다시 한번, 비교 우위 문제를 풀 때는

00:12:43.451 --> 00:12:46.425 기회의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12:46.525 --> 00:12:50.604 그래서 기회의 비용이 서로서로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때

00:12:50.704 --> 00:12:53.251 기회의 비용의 값을 줄일 수 있을 때

00:12:53.708 --> 00:12:57.395 그 물건을 특화해서 그것만 만들어서 서로 무역.

00:12:57.495 --> 00:13:01.278 그러니까 교환을 하면 양쪽 다 기회의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.

00:13:01.378 --> 00:13:04.279 그러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무역이 되지 않겠냐.

00:13:04.379 --> 00:13:07.000 이게 비교 우위 이론이 되는 겁니다.

00:13:07.100 --> 00:13:09.937 갑국, 을국 둘 다 윈윈할 수가 있는 거죠.

00:13:10.037 --> 00:13:12.655 절대 우위보다는 비교 우위 쪽으로 가는 것이

00:13:12.755 --> 00:13:18.356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3:18.456 --> 00:13:19.869 알겠죠?

00:13:19.969 --> 00:13:24.206 연습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뒷장에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

00:13:24.306 --> 00:13:26.750 거긴 설명을 더 심하게 길게 써놨고요.

00:13:26.850 --> 00:13:29.802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한 번 정도 더 읽으시면

00:13:29.902 --> 00:13:34.639 이 비교 우위에서 기회의 비용을 비교해서

00:13:34.739 --> 00:13:37.803 양쪽 다 기회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,

00:13:37.903 --> 00:13:41.366 이걸 이해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, 아시겠죠?

00:13:41.466 --> 00:13:43.449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.

00:13:43.549 --> 00:13:46.113 일단 넘어갈게요.

00:13:46.213 --> 00:13:49.258 무역 이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.

00:13:49.358 --> 00:13:50.340 그러면 두 번째요.

00:13:50.440 --> 00:13:53.253 무역 확대와 양면성.

00:13:53.353 --> 00:13:57.169 지금 현대 사회는 앞서 계속 배웠지만

00:13:57.269 --> 00:14:01.328 경제가 세계화되다 보니까 무역도 확대가 될 것이고

00:14:01.836 --> 00:14:05.385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.

00:14:05.485 --> 00:14:07.722 이게 경제의 세계화인데요.

00:14:07.822 --> 00:14:09.142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. 00:14:09.242 --> 00:14:13.075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

00:14:13.175 --> 00:14:14.669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.

00:14:14.769 --> 00:14:20.179 긍정적,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

00:14:20.279 --> 00:14:24.168 일단 무역이 확대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

00:14:24.268 --> 00:14:27.603 우리 개인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,

00:14:27.703 --> 00:14:31.703 비교 우위에 따라서 무역이 활성화되니까, 보세요.

00:14:31.803 --> 00:14:35.010 국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나 비싼 상품도

00:14:35.110 --> 00:14:39.742 결국 서로서로 이득이 되는 비교 우위에 근거한 상품 교환.

00:14:39.842 --> 00:14:44.314 그 무역을 통해서 싸고 저렴하게 쉽게 구매할 수 있죠.

00:14:44.414 --> 00:14:47.675 또 상품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.

00:14:47.775 --> 00:14:52.870 다른 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제품 서비스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?

00:14:52.970 --> 00:14:59.337 그러니 다양성도 증대가 되고 경제적인 편익과 만족감도 증가하는 거죠.

00:14:59.437 --> 00:15:04.950 그래서 무역이 활성화되면 개인, 이 가계 경제 주체한테는

00:15:05.050 --> 00:15:08.550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죠, 이해되겠습니까?

00:15:08.650 --> 00:15:12.946 두 번째, 기업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냐.

00:15:13.046 --> 00:15:13.869

뻔하죠.

00:15:13.969 --> 00:15:17.484 외국에서 원료 같은 것들을 값싸게 들여올 수 있습니다.

00:15:17.584 --> 00:15:21.736 그렇잖아요, 생산 요소 시장도 전 세계로 다 오픈되는 거니까

00:15:21.836 --> 00:15:25.274 그만큼 원료 같은 것들도 값싸게 들여올 수 있고요.

00:15:25.374 --> 00:15:29.968 또 비교 우위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맞바꾸면 되죠.

00:15:30.068 --> 00:15:32.794 그러면 기회의 비용을 양쪽 다 줄일 수 있었으니까

00:15:32.894 --> 00:15:36.431 양쪽 다 이득이 되는 거죠, 맞죠?

00:15:36.531 --> 00:15:39.641 그러니 생산비도 절감시킬 수 있고

00:15:39.741 --> 00:15:42.376 우리가 잘난 쪽을 특화시켜서 판매를 하니까

00:15:42.476 --> 00:15:44.587 당연히 이윤도 증가가 될 거고

00:15:44.687 --> 00:15:48.935 그러면 생산 설비가 점점 커질 테니까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

00:15:49.035 --> 00:15:50.829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.

00:15:50.929 --> 00:15:55.639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.

00:15:55.739 --> 00:15:59.680 그만큼 하나의 물건만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

00:15:59.780 --> 00:16:04.002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

00:16:04.102 --> 00:16:08.068 그래서 어떤 생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,

00:16:08.168 --> 00:16:12.492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을 00:16:12.592 --> 00:16:15.428 이른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에요.

00:16:15.528 --> 00:16:19.752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못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.

00:16:19.852 --> 00:16:21.399 아시겠죠?

00:16:21.499 --> 00:16:24.805 그러면 결국 국내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

00:16:24.905 --> 00:16:27.818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 당연히 생길 것이고

00:16:27.918 --> 00:16:30.354 고용도 계속 창출될 것이고

00:16:30.454 --> 00:16:34.320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.

00:16:34.420 --> 00:16:37.503 다음 세 번째,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뭐가 좋냐.

00:16:37.603 --> 00:16:42.055 일단 선진국 기술 같은 것들, 자본 같은 것들 전파받을 수도 있고요.

00:16:42.681 --> 00:16:48.004 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.

00:16:48.104 --> 00:16:50.482 이건 다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.

00:16:50.582 --> 00:16:53.252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돼요.

00:16:53.352 --> 00:16:56.765 그러면 역시나 중요한 건 부정적인 역기능입니다.

00:16:56.865 --> 00:17:00.551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다 이런 것들이죠.

00:17:00.651 --> 00:17:03.733 부정적인 현실적인 측면들인데

00:17:03.833 --> 00:17:09.630 1, 점점 세계가 통합되고 경제가 오픈되면

00:17:09.730 --> 00:17:14.627

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기업은 당연히 경쟁이 안 되니까 쇠퇴하겠죠.

00:17:14.727 --> 00:17:15.875 그렇잖아요.

00:17:15.975 --> 00:17:19.805 다른 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오면 그 내수경제,

00:17:19.905 --> 00:17:23.230 즉 그 국내 기업 중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

00:17:23.330 --> 00:17:26.658 경쟁이 안 되는 곳은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7:26.758 --> 00:17:30.304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고

00:17:30.404 --> 00:17:33.758 이제는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니까요.

00:17:33.887 --> 00:17:37.692 이건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.

00:17:37.792 --> 00:17:44.037 그러면 망한 기업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, 맞죠?

00:17:44.137 --> 00:17:46.755 그러면 사회적인 불안, 소득 분배의 불균형.

00:17:46.855 --> 00:17:50.753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게 되겠죠.

00:17:50.853 --> 00:17:51.943 다음 두 번째요.

00:17:52.043 --> 00:17:57.341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

00:17:57.441 --> 00:18:00.916 각종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을 시행하려고 할 겁니다.

00:18:01.016 --> 00:18:03.087 이건 보호무역이라고 하는데요, 전문 용어로.

00:18:03.187 --> 00:18:06.68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요? 00:18:07.458 --> 00:18:09.779 어떤 빵집이 있어요.

00:18:10.518 --> 00:18:14.960 그런데 우리나라 빵집이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돈도 많이 벌고

00:18:15.060 --> 00:18:18.039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괜찮은 기업인데

00:18:18.139 --> 00:18:22.431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의 빵집이

00:18:22.531 --> 00:18:26.575 어마어마한 규모로 강남에 딱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.

00:18:26.675 --> 00:18:31.967 그리고 맛도 좋고 더 싼 거예요, 몸에도 좋고요.

00:18:32.067 --> 00:18:34.002 이러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.

00:18:34.102 --> 00:18:37.966 그러면 우리나라 빵집도 계속 가격을 인하해야 될 거고

00:18:38.066 --> 00:18:40.513 불필요하게 광고도 계속해야 될 거고

00:18:40.613 --> 00:18:44.689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?

00:18:44.789 --> 00:18:47.572 그런데도 사실상 이기기가 힘들어요.

00:18:47.672 --> 00:18:50.704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

00:18:50.804 --> 00:18:54.095 대한민국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서, 망하면 안 되니까.

00:18:54.195 --> 00:18:56.767 외국 빵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.

00:18:56.867 --> 00:18:58.434 그러니까 보호 장벽을 세우는 거죠.

00:18:58.534 --> 00:19:01.804 빵집은 안 돼,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.

00:19:01.904 --> 00:19:04.433 이거는 일종의 무역 이기주의죠. 00:19:04.589 --> 00:19:08.869 우리나라 기업은 살릴 거야, 빵은 안 돼, 들어오지 마.

00:19:08.969 --> 00:19:12.180 이거는 자유무역의 정신에 어긋나잖아, 그렇잖아요.

00:19:12.280 --> 00:19:14.448 이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.

00:19:14.548 --> 00:19:16.885 이걸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

00:19:16.985 --> 00:19:21.589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서

00:19:21.689 --> 00:19:23.736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면

00:19:23.836 --> 00:19:27.210 당연히 외국 정부랑 외국 빵집이 가만히 있겠어요?

00:19:27.310 --> 00:19:28.206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.

00:19:28.306 --> 00:19:29.315 어라, 한국 그래.

00:19:29.415 --> 00:19:31.038 그러면 너희 핸드폰 팔지 마.

00:19:31.138 --> 00:19:31.833 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19:31.933 --> 00:19:33.575 반도체 안 사.

00:19:33.675 --> 00:19:34.893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19:34.993 --> 00:19:35.756 그러면 무역은요?

00:19:35.856 --> 00:19:37.506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.

00:19:37.606 --> 00:19:38.180 이해되겠죠?

00:19:38.280 --> 00:19:40.968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시키면

00:19:41.068 --> 00:19:45.461 외국 정부와 외국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. 00:19:45.561 --> 00:19:52.144 이러면 외교분쟁, 무역분쟁, 무역갈등, 무조건 생기죠.

00:19:52.244 --> 00:19:53.633 이해되겠어요?

00:19:53.733 --> 00:19:55.394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19:55.494 --> 00:19:59.527 샘, 그러면 대한민국 빵집이 경쟁력을 키워야죠, 라고 이야기하는데

00:19:59.627 --> 00:20:01.417 너희가 경쟁해봐, 쉽나.

00:20:01.517 --> 00:20:02.903 쉽지 않아요.

00:20:03.003 --> 00:20:06.706 그래서 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.

00:20:06.806 --> 00:20:08.054 잘 안 섞입니다.

00:20:08.154 --> 00:20:12.679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

00:20:12.779 --> 00:20:13.453 이해되죠?

00:20:13.553 --> 00:20:16.617 그러니 선진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이

00:20:16.754 --> 00:20:19.662 이런 자유로운 무역 같은 것들을 협정 맺으면

00:20:19.762 --> 00:20:23.973 무조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종속돼요.

00:20:24.073 --> 00:20:26.346 막말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.

00:20:26.446 --> 00:20:28.118 이건 문제죠.

00:20:28.218 --> 00:20:29.697 이해되죠?

00:20:29.797 --> 00:20:32.964 그렇고요, 다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발생한다.

00:20:33.064 --> 00:20:37.351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석유값이 폭등한다든가 00:20:37.451 --> 00:20:41.028 옛날처럼 오일쇼크, 이런 게 발생한다든가

00:20:41.128 --> 00:20:43.591 또는 유럽발 경제 위기.

00:20:43.691 --> 00:20:44.913 이런 말 들어봤죠?

00:20:45.013 --> 00:20:46.607 미국의 서프라임모기지.

00:20:46.707 --> 00:20:47.334 너무 어렵나?

00:20:47.434 --> 00:20:50.572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것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

00:20:50.672 --> 00:20:53.974 그건 얼핏보면 미국 땅값 문제잖아요.

00:20:54.074 --> 00:20:55.741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.

00:20:55.841 --> 00:20:59.669 이 세계 경제가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고 통합되다 보니까

00:20:59.769 --> 00:21:02.232 미국 쪽 경제가 나빠지면

00:21:02.332 --> 00:21:05.568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여파를 미치게 되어있습니다.

00:21:05.668 --> 00:21:09.522 그러니까 경제가 통합되고 무역이 활발해지고

00:21:09.622 --> 00:21:13.033 어떤 세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.

00:21:13.133 --> 00:21:16.171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

00:21:16.271 --> 00:21:18.822 다른 나라 경제에 불안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

00:21:18.922 --> 00:21:23.310 그게 우리나라 경제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,

00:21:23.410 --> 00:21:27.058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니까요, 이해되겠습니까?

00:21:27.158 --> 00:21:30.728 미국 땅값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규제합니까?

00:21:30.828 --> 00:21:33.946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, 가슴 졸이면서.

00:21:34.592 --> 00:21:36.721 예를 들면 알아들을까 모르겠지만

00:21:36.821 --> 00:21:40.200 미국에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.

00:21:40.300 --> 00:21:44.149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니, 미국은행이 이자 올리는 거 하고

00:21:44.249 --> 00:21:46.233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, 라고 할 텐데

00:21:46.333 --> 00:21:49.631 엄청나게 상관있어요, 아주 난리가 납니다.

00:21:49.731 --> 00:21:52.768 미국은행 금리가 인상되었다, 인하되었다.

00:21:52.868 --> 00:21:56.821 이 뉴스 한 줄로 코스피 지수가 막 요동치는 게

00:21:56.921 --> 00:21:58.365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인 거예요.

00:21:58.465 --> 00:22:01.955 그만큼 많이 연관되어있는 거죠, 이해되겠죠?

00:22:02.055 --> 00:22:03.670 이건 장점이라 볼 수는 없죠.

00:22:03.770 --> 00:22:07.174 이건 리스크가 너무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.

00:22:07.274 --> 00:22:10.127 그래서 세계 경제에 불안요인이 발생하게 되면

00:22:10.227 --> 00:22:12.229 결국 수출 환경도 나빠질 것이고

00:22:12.329 --> 00:22:16.450 연관 산업 생산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. 00:22:16.550 --> 00:22:18.302 다시 말씀드리면,

00:22:18.402 --> 00:22:25.441 지나칠 정도로 국가 간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.

00:22:25.541 --> 00:22:30.511 이걸 좋게 보면 장점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단점이죠.

00:22:30.611 --> 00:22:33.415 그렇다고 이걸 다 뗄 수도 없고.

00:22:33.515 --> 00:22:38.311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세계화된 지는 지금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.

00:22:38.411 --> 00:22:40.739 이걸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어요.

00:22:40.839 --> 00:22:46.437 그래서 몇몇 국가들이 아까도 봤지만, 자국 산업을 위해서

00:22:46.537 --> 00:22:50.091 어떤 보호무역 정책 같은 것들을 했던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.

00:22:50.191 --> 00:22:52.416 그런데 전부 다 무역 보복이라든가

00:22:52.516 --> 00:22:57.010 외교 분쟁으로까지 막 비하가 되고 결국에는 힘이 없는 국가들은

00:22:57.110 --> 00:23:00.110 다 굴복하게 되어있어요, 이해돼요?

00:23:00.210 --> 00:23:03.380 하나만 약간 자극적인 거 이야기해볼까?

00:23:03.480 --> 00:23:05.387 사드, 뭔지 알죠?

00:23:05.487 --> 00:23:07.804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, 사드.

00:23:07.904 --> 00:23:09.333 우리나라 들어왔잖아.

00:23:09.433 --> 00:23:10.310 맞지?

00:23:10.410 --> 00:23:14.770 그런데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민감한 나라가 어디였어요?

- 00:23:14.870 --> 00:23:16.542 중국이었어요.
- 00:23:16.642 --> 00:23:18.284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.
- 00:23:18.384 --> 00:23:20.429 그거 빼라고, 빼라고.
- 00:23:20.529 --> 00:23:24.066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빼요, 미국이 가지고 온 건데.
- 00:23:24.166 --> 00:23:26.508 중간에 딱 껴서 진짜 불쌍합니다, 대한민국.
- 00:23:26.608 --> 00:23:29.057 미국 눈치 봐야죠, 중국 눈치 봐야죠.
- 00:23:29.157 --> 00:23:30.830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
- 00:23:30.930 --> 00:23:33.874 그런데 일단 들어오긴 한 거고 배치가 됐으니까
- 00:23:33.974 --> 00:23:38.068 이제는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.
- 00:23:38.168 --> 00:23:41.257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걸요?
- 00:23:41.357 --> 00:23:42.969 중국이 뭐했게요?
- 00:23:43.069 --> 00:23:44.585 전쟁을 일으키나요?
- 00:23:44.685 --> 00:23:47.287 그건 아니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.
- 00:23:47.387 --> 00:23:50.859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보복이 뭐게요?
- 00:23:50.959 --> 00:23:52.824 그럼요, 경제 보복이에요.
- 00:23:52.924 --> 00:23:54.960 그래서 당시 중국이 뭐했어요?
- 00:23:55.060 --> 00:24:01.536 중국 내에 있었던 롯데마트 같은 대한민국 마트 있잖아요.
- 00:24:01.636 --> 00:24:03.668 이거 전부 다 문 닫게 했어요.

00:24:03.768 --> 00:24:06.825 계속 말도 안 되는 감시 견제하고 통제하고

00:24:06.925 --> 00:24:09.752 소방 규정 위반했네, 한 달 동안 영업정지.

00:24:09.852 --> 00:24:11.422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겁니다.

00:24:12.256 --> 00:24:14.470 또 유커라 그러죠?

00:24:14.570 --> 00:24:19.551 중국인 관광객들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여행 금지야,

00:24:19.651 --> 00:24:21.844 여행 금지 국가로 때려버리면

00:24:21.944 --> 00:24:27.338 제주도에 물건 사 가는 중국인들 한 명도 못 들어왔었어요.

00:24:27.438 --> 00:24:29.19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

00:24:29.294 --> 00:24:34.145 우리가 솔직히 언제부터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VIP로 모셨습니까?

00:24:34.245 --> 00:24:35.451 얼마 안 됐거든요.

00:24:35.551 --> 00:24:38.648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준 게 중국 유커들인데

00:24:38.748 --> 00:24:43.014 이걸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여행을 금지시켜버리면

00:24:43.114 --> 00:24:46.165 제주도 지역 경제 다 망하는 거예요.

00:24:46.265 --> 00:24:47.19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.

00:24:47.290 --> 00:24:50.206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.

00:24:50.306 --> 00:24:54.853 물론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만큼 돈을 많이 쓰면 좋죠.

00:24:55.687 --> 00:24:58.243 명동 화장품 다 쓸어가고 좋아요. 00:24:58.343 --> 00:25:00.056 그런데 만약에 그게 끊기면요?

00:25:00.156 --> 00:25:01.525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?

00:25:01.625 --> 00:25:02.553 대안이 없잖아요.

00:25:02.653 --> 00:25:04.874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

00:25:04.974 --> 00:25:06.455 이해되겠습니까?

00:25:07.714 --> 00:25:10.476 FTA가 정답은 아닌 거예요.

00:25:10.576 --> 00:25:14.999 자유무역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.

00:25:16.038 --> 00:25:18.090 다음 세 번째요.

00:25:18.190 --> 00:25:21.335 연속되는 주제인데 결국 이 자유무역.

00:25:21.435 --> 00:25:25.604 경제의 어떤 세계화, 이것도 이루어지지만

00:25:25.704 --> 00:25:29.454 지역 경제 블록이라고 해서 경제의 지역화.

00:25:29.554 --> 00:25:31.040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.

00:25:31.140 --> 00:25:34.724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서 배우고 왔습니다.

00:25:34.824 --> 00:25:37.205 glocalization, 기억나세요?

00:25:37.305 --> 00:25:39.444 globalization이 세계화죠.

00:25:39.544 --> 00:25:41.348 localization이 지역화잖아.

00:25:41.448 --> 00:25:46.567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되어서 glocalization. 00:25:46.667 --> 00:25:51.147 세계 지역화,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죠.

00:25:51.247 --> 00:25:56.104 그중 이 WTO하고 FTA가, 이것도 앞서 배우고 왔습니다.

00:25:56.204 --> 00:26:01.028 이건 자유무역, 경제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였었죠?

00:26:01.128 --> 00:26:02.594 일단 WTO.

00:26:02.694 --> 00:26:04.993 World Trade Organization.

00:26:05.093 --> 00:26:08.146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입니다.

00:26:08.246 --> 00:26:09.943 포인트는 이겁니다.

00:26:10.043 --> 00:26:11.418 무역 장벽 제거.

00:26:11.518 --> 00:26:14.673 그러니 이 WTO의 정신은 당연히 뭐예요?

00:26:14.803 --> 00:26:15.973 자유무역인 거예요.

00:26:16.073 --> 00:26:18.518 보호무역 철폐, 관세 철폐.

00:26:19.205 --> 00:26:23.541 그냥 경쟁하자, 자유롭게 무역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보자.

00:26:23.641 --> 00:26:26.905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.

00:26:27.005 --> 00:26:28.471 이해되겠죠?

00:26:28.571 --> 00:26:33.609 FTA는 기구는 아니고 그냥 국제법상 협정 같은 거예요.

00:26:33.709 --> 00:26:42.003 F는 free, T는 trade, A는 agreement라고 해서 자유무역협정.

00:26:42.103 --> 00:26:43.192 국제법이야.

00:26:43.292 --> 00:26:47.651 국가 대 국가끼리 1대1로 국제 협약을 맺는 거죠.

00:26:47.751 --> 00:26:50.312 자유롭게 무역하기야, 라고 협정.

00:26:50.412 --> 00:26:54.085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건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입니다.

00:26:54.185 --> 00:26:56.204 반드시 지켜야 돼요.

00:26:56.304 --> 00:27:00.454 지키기 싫으면 협약을 깨야죠, 양국이 합의해서.

00:27:00.554 --> 00:27:05.467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 한미 FTA가 있죠.

00:27:06.160 --> 00:27:09.980 국가 간의 교역할 때 관세, 이거는 무역할 때

00:27:10.080 --> 00:27:12.391 물건에 붙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.

00:27:12.491 --> 00:27:15.815 그리고 각종 무역장벽 또는 보호무역 조치.

00:27:15.915 --> 00:27:18.451 이런 것들을 완화, 제거하는 협정.

00:27:18.551 --> 00:27:21.416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서

00:27:21.516 --> 00:27:26.060 국가 대 국가끼리 맺는 국제 협정을 FTA라고 합니다.

00:27:26.160 --> 00:27:27.207 아시겠죠?

00:27:27.307 --> 00:27:30.720 이건 경제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증거고요.

00:27:30.820 --> 00:27:36.611 세 번째는 지역경제 블록이라고 해서 이건 지역화를 보여주는 거죠.

00:27:36.711 --> 00:27:37.651 볼까요?

00:27:37.751 --> 00:27:41.739 지리적으로 가깝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만드는 겁니다.

00:27:41.839 --> 00:27:44.034

이건 전 세계가 무대인 게 아니고

00:27:44.134 --> 00:27:48.392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블록들이 생기는 거예요, 구역들이.

00:27:48.492 --> 00:27:54.821 그래서 같은 블록 내에 있는 국가들은 관세 인하, 무역장벽 낮추고

00:27:54.921 --> 00:27:59.283 같이 잘 살아보자이지만 비회원국들.

00:27:59.383 --> 00:28:02.652 그러니까 블록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

00:28:02.752 --> 00:28:04.525 차별적인 무역 규제를 취하는 거죠.

00:28:04.625 --> 00:28:06.905 예를 들면 어떻게 해볼까요?

00:28:07.005 --> 00:28:11.402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해볼까요?

00:28:13.490 --> 00:28:14.524 들어보셨나요?

00:28:14.624 --> 00:28:16.297 ASEAN이라고 아세안.

00:28:16.397 --> 00:28:17.717 발음대로 아세안.

00:28:17.817 --> 00:28:20.426 이건 AEA를 주목하는 거예요.

00:28:20.526 --> 00:28:23.535 South East Asian,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입니다.

00:28:23.635 --> 00:28:26.618 이게 동남아시아 연합이라는 것인데요.

00:28:26.718 --> 00:28:28.655 글자 그대로 동남아시아니까

00:28:28.755 --> 00:28:32.354 여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만 모여있는 겁니다.

00:28:32.454 --> 00:28:36.424 그러니 아세안 회원국들은 동남아 국가들일 거 아니냐.

00:28:36.524 --> 00:28:42.467 예를 들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무역할 때는 자유로운 거예요. 00:28:42.567 --> 00:28:45.814 관세도 철폐하고 보호무역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

00:28:45.914 --> 00:28:47.061 아주 자유롭게.

00:28:47.161 --> 00:28:50.036 우리끼리 잘살아 보자, 이거예요.

00:28:50.136 --> 00:28:55.203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는 아니잖아.

00:28:55.303 --> 00:29:01.198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세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려면

00:29:01.298 --> 00:29:07.285 지금 이 구역 밖에 있는 국가니까 아세안은 다른 비회원국.

00:29:07.385 --> 00:29:09.834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 대해서는

00:29:09.934 --> 00:29:12.299 차별적인 제재를 하는 겁니다.

00:29:12.399 --> 00:29:13.419 이해되겠어요?

00:29:13.519 --> 00:29:18.572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한국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.

00:29:18.672 --> 00:29:19.368 이해되겠죠?

00:29:19.468 --> 00:29:22.612 이게 되게 배타적입니다, 성격 자체가.

00:29:22.712 --> 00:29:24.60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

00:29:24.701 --> 00:29:30.067 이건 세계화하고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죠.

00:29:31.224 --> 00:29:35.394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제경제의 트랜드는

00:29:35.494 --> 00:29:38.409 WTO, FTA로 대표되는 자유무역과.

00:29:38.509 --> 00:29:42.028 즉 경제의 통합 세계화와 지역 간의 경제 블록인

00:29:42.128 --> 00:29:46.023 지역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29:46.123 --> 00:29:48.546 아시겠죠? 됐고요.

00:29:48.646 --> 00:29:51.713 다음 저희 교안 보시면 제가 절대 우위하고

00:29:51.813 --> 00:29:54.769 비교 우위 연습할 수 있는 걸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

00:29:54.869 --> 00:29:56.907 이건 제가 설명을 다 적어놨거든요,

00:29:57.007 --> 00:29:58.672 좀 지나치게 길게.

00:29:58.772 --> 00:30:02.483 이거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, 아시겠죠?

00:30:02.583 --> 00:30:05.172 그리고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

00:30:05.272 --> 00:30:08.348 그러면 퀴즈 해볼까요?

00:30:08.448 --> 00:30:10.319 바로 갑니다.

00:30:10.419 --> 00:30:12.877 첫 번째는 체크 표시해봐.

00:30:12.977 --> 00:30:15.368 1번, 지구 전체가 통합되어서

00:30:15.468 --> 00:30:18.359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?

00:30:18.459 --> 00:30:22.379 globalization, 세계화죠.

00:30:22.479 --> 00:30:26.075 지구촌화, 통합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

00:30:26.175 --> 00:30:30.313 다음 두 번째, 세계 무역 기구인 WTO,

00:30:30.413 --> 00:30:34.312

자유무역협정인 FTA는 당연히 무슨 무역을?

00:30:34.412 --> 00:30:38.831 그럼요,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.

00:30:38.931 --> 00:30:40.273 맞죠?

00:30:40.373 --> 00:30:41.614 다음 세 번째,

00:30:41.714 --> 00:30:46.744 경제 000은 경제 활동의 장해 요인을 제거하는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다.

00:30:46.844 --> 00:30:48.682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?

00:30:48.782 --> 00:30:54.748 경제 권역이 통합되어야 각종 방해 장해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.

00:30:54.848 --> 00:30:55.460 그렇잖아요.

00:30:55.560 --> 00:31:01.960 경제 활동의 무대가 통합되어야 당연히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.

00:31:03.424 --> 00:31:05.297 좋고 다음 두 번째요.

00:31:05.397 --> 00:31:09.597 서술형 대비를 위한 개념어 쓰기입니다.

00:31:10.510 --> 00:31:11.726 봅시다.

00:31:11.826 --> 00:31:16.163 1, 각국이 자국 생산에 유리한 재화와 서비스만을

00:31:16.263 --> 00:31:20.625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두 글자로 특화라고 해요.

00:31:20.725 --> 00:31:24.104 이건 어휘죠, 개념어라기보다는.

00:31:24.204 --> 00:31:25.131 특화.

00:31:25.231 --> 00:31:26.633 다음 두 번째요. 00:31:26.733 --> 00:31:28.707 각국이 재화와 서비스를 특화해서.

00:31:28.807 --> 00:31:30.862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든 특화를 통해서

00:31:30.962 --> 00:31:35.216 무역을 통해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

00:31:35.316 --> 00:31:40.245 굳이 교과서 용어로 적어드리면 국제 분업이라고 하면 됩니다.

00:31:40.345 --> 00:31:44.525 사실상 무역이나 국제 분업이나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.

00:31:44.625 --> 00:31:47.242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학교 샘들이 만드신다면

00:31:47.342 --> 00:31:51.528 이 국제 분업을 답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, 아시겠죠?

00:31:51.628 --> 00:31:58.192 다음 세 번째, 이것이란 어떤 한 나라가 바로 나오네.

00:31:58.292 --> 00:32:00.996 다른 국가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

00:32:01.096 --> 00:32:06.796 좀 더 낮은 기회의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.

00:32:06.896 --> 00:32:08.282 절대 우위, 비교 우위?

00:32:08.382 --> 00:32:10.987 그렇지, 이게 비교 우위입니다.

00:32:12.029 --> 00:32:15.722 잘난 국가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거 말고, 아시겠죠?

00:32:15.822 --> 00:32:19.440 생산비를 계산해서 좀 더 적은 기회의 비용으로

00:32:19.540 --> 00:32:22.735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게 양쪽 다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

00:32:22.835 --> 00:32:27.176 이걸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거죠, 됐죠?

00:32:27.276 --> 00:32:33.666

다음 네 번째, 생산 규모가 커지거나 생산량이 늘수록

00:32:33.766 --> 00:32:38.464 규모가 방대해지거나 물건을 왕창왕창 대량 생산할수록

00:32:38.564 --> 00:32:43.555 오히려 생산 원가, 그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걸

00:32:43.655 --> 00:32:45.317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죠.

00:32:45.417 --> 00:32:47.166 아까 뭐라고 그랬게요?

00:32:47.266 --> 00:32:50.899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.

00:32:50.999 --> 00:32:53.001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.

00:32:53.101 --> 00:32:55.070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

00:32:55.170 --> 00:32:57.657 규모의 경제.

00:32:57.757 --> 00:32:59.604 됐고요.

00:32:59.704 --> 00:33:02.697 다음에 O, X하고 마무리할게요.

00:33:05.988 --> 00:33:07.382 봅시다.

00:33:07.482 --> 00:33:12.254 첫 번째,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 여건이 서로 달라서

00:33:12.354 --> 00:33:16.720 당연히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무역이 발생하는 거죠.

00:33:16.820 --> 00:33:18.335 당연한 거 아닙니까?

00:33:18.789 --> 00:33:22.241 모든 생산비가 모든 국가가 다 똑같으면

00:33:22.341 --> 00:33:23.484 뭐하러 물건을 바꿉니까?

00:33:23.584 --> 00:33:26.103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면 되지.

00:33:26.203 --> 00:33:27.127

그렇잖아요.

00:33:27.227 --> 00:33:30.894 생산비용이 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

00:33:31.286 --> 00:33:33.271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
00:33:33.371 --> 00:33:34.573 다음 두 번째요.

00:33:34.673 --> 00:33:38.720 무역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은

00:33:38.820 --> 00:33:40.236 당연히 확대되겠죠.

00:33:40.336 --> 00:33:44.687 그만큼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오니까

00:33:44.787 --> 00:33:48.726 당연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을 즐길 수가 있죠.

00:33:48.826 --> 00:33:53.996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의 편익은 증가할 겁니다.

00:33:55.471 --> 00:33:56.656 다음 세 번째요.

00:33:56.756 --> 00:33:59.921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 발달로.

00:34:00.021 --> 00:34:05.627 그럼요, 물리적, 시간적, 공간적인 장벽은 많이 완화됐고요.

00:34:05.727 --> 00:34:10.460 그래서 요새 해외 직구 같은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.

00:34:10.560 --> 00:34:11.925 다음 네 번째요.

00:34:12.025 --> 00:34:15.753 지역 경제 블록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자유무역.

00:34:15.853 --> 00:34:19.013 이건 거짓말이죠.

00:34:19.113 --> 00:34:19.779 왜요? 00:34:19.879 --> 00:34:23.877 지역경제 블록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자유무역이 아닙니다.

00:34:23.977 --> 00:34:27.538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ASEAN, 이걸 기억하면 돼요.

00:34:27.638 --> 00:34:30.921 동남아시아 회원국들끼리는 자유무역입니다.

00:34:31.021 --> 00:34:35.139 그런데 비회원국, 그러니까 아세안 권역에 안 들어가는

00:34:35.239 --> 00:34:40.210 그런 국가한테는 아주 차별적인 무역제재를 가하는 거예요.

00:34:40.310 --> 00:34:40.917 이해되겠죠?

00:34:41.017 --> 00:34:43.455 성격 자체가 많이 배타적이죠.

00:34:43.555 --> 00:34:46.615 '우리 편만 모여'가 되는 겹니다.

00:34:46.715 --> 00:34:50.407 정리되죠? 좋습니다, 여기까지고요.

00:34:50.507 --> 00:34:53.484 비교 우위,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

00:34:53.584 --> 00:34:57.164 기회의 비용으로 따져보는 겁니다, 아시겠죠?

00:34:57.264 --> 00:35:01.224 관련 문제는 대비 특강할 때 무수히 던져드릴 거고

00:35:01.324 --> 00:35:04.262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이거 누구나 풀 수 있어요.

00:35:04.362 --> 00:35:05.468 아시겠죠?

00:35:05.568 --> 00:35:08.867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경제 마지막 테마입니다.

00:35:08.967 --> 00:35:11.488 이제 자산 관리라는 주제가 남아있습니다.

00:35:11.588 --> 00:35:12.510

여기는 쉬워요.

00:35:12.610 --> 00:35:16.691 거기까지 정리하면 통합사회 완강이 됩니다, 아시겠죠?

00:35:16.791 --> 00:35:17.990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.

00:35:18.090 --> 00:35:19.348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35:19.448 --> 00:35:21.186 수고하셨습니다.